

‘과학기술의 세계화’란 캐치프레이즈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처, 통일원, 외무부 등 정부 주요부처가 후원한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6월24일부터 7월6일까지 2주간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

가짐으로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의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가 되었으며 호주에서도 2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기초과학(수학통계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분야를 비롯해 전기

'9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일시 ... 96년 6월24일~7월6일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과총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열린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는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의 해외동포과학기술자 5백여명과 3천여명의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였다. 정보통신 등 7개 분야에 걸쳐 3백80여편의 최신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 학계 산업계 및 해외 과학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첨단 과학기술의 최신 동향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전파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이뤘다.



▲ 96년 6월24일 과총 주최로 열린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회식 장면

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해외동포과학자 5백여명 참가

세계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과학 두뇌들이 3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등 14개국의 해외동포 과학기술자 5백여명과 3천여명의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해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전자·정보통신(컴퓨터 포함)분야, 고분자·금속공학·요업·화학공학분야, 기계·항공·조선·산업공학분야, 도시·건축·환경·에너지·도시 및 교통계획분야, 식품공학·농학·축산·임학분야, 의학·약학·보건학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 3백80여편의 최신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해외의 첨단 과학기술을 조국에 전달하고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조국의 과학기술 향상과 산업

崔榮煥

(재호주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과학기술 세계화 추진 전략」,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및 통합과 전망」, 「일본의 첨단 기술」 등 3개의 특별포럼(FORUM)은 국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및 해외 과학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 토론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해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의 성장 발판 위에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 및 생존 전략을 새롭게 다져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의 세계화 추진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李祥羲 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현 국회의원은) 지구촌 사회에서 신뢰받는 열린 국가의 비전을 목표로 제시하며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과학 외적인 정부 기능이나 제도를 보다 과학기술 혁신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으로서 세계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개발의 범 국가적 협력과 연구 생산성에 역점을 두는 연구 개발 활동의 전개, 민간 주도 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의 역할 수행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수박 값이 국제가격의 10배 이상이고 국내 노동 임금이 선진국 수준만큼이나 높아진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과 물밀듯 밀려오는 외국 상품과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대우전자 裴海勳회장은 기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을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과 국제 시장으로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의 세계화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의 세계화 및 상품 교역보다 규모가 커진 자본이동(예를 들면 국가간의 환율 변동, 투자 회수율 차이, 금융 이자의 격차)의 세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북 공동연구단지 건설제의 관심

남북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 관심분야부터 추진하되 협력 주체는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부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 민간 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인 鄭助 英과총상임부회장은 남북한 중간인 비무장지대(DMZ)에 남북과학기술공동연구단지 건설을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에 새로운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남북 해방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공동연구단지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기술을 상호 결합, 기술 이전 및 통합을 꾀하는 장소로 사용하자는 것으로 우선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와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된 원자력 연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연구단지 조성지로 비무장지대를 들었으나 북한의 사정에 따라서는 나진, 선봉이나 중국의 연변지역도 괜찮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작년 11월 평양을 공식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姜貴吉 회장의 “한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세계에서는 북한은 식량난과 물자 부족 및 경제 파탄으로 북한 내부에 큰 정치적 변동이나 정변 혹은 군중 운동 같은 것

이 일어나 북한 스스로 자멸하여 혹시나 흡수 통일 아니면 평화 통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고한 주체사상,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정·군의 일사불란한 조직, 북한 주민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 당국의 엄격한 감시 활동 등으로 북한 사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긴장 국면의 조성으로 오히려 정치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지적인 전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양 방문 감상은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었다.

지루하고 타성적으로 흐르기 쉬운 종합학술회의 틀을 깨고 학술발표장이나 특별포럼 회의장의 분위기는 전문적이면서도 매우 진지하였고 규정된 시간을 초월하면서 벌이는 열띤 토론의 장면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삶의 도전적 명제를 던져주었으며 학술대회장 입구의 한편에서는 국내유수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중인 고급 과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유치센터’를 설치, 인력 유치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美선 북한대학생 연수추진

또한 柳斗榮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캘리포니아대 교수)은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무성을 통해 농업과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북한 대학생 10명을 미국 대학에서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성사될 단계에 와 있으며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 과학기술협력사업 중 ‘북한 차세대 과학기술자 연수사업’이란 명칭으로 한국 정부와는 관계없이 재미한인과학기술자들만의 별도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미국과 북한간 관

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 주목을 받았다.

과총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규모도 국제적이어서 과총의 전 직원이 총 출동하여 1년동안 준비해왔으며 특히 재외한인과학기술자들의 가족까지 초청해 민속촌, 창덕궁 등 민족문화의 뿌리를 관광시켜 주었고 더불어 산업시찰까지 시켜주어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金대통령, 청와대 다과회 초청

金泳三大통령은 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12개국 2백17명의 교포 과학기술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베푼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국제 협력 증진이



▲ 金泳三大통령은 다과회에 참석한 과학자들과 함께 몇차례로 나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필자이다.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해외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국내 연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교포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가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학술회의와는 별도로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회장단(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 회의에서 崔亨燮 과

총회장은 “재외 기업인들 및 해외 진출 한국 기업과 재외 과학기술자협회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중점을 뒤야 할 것이고 재일 과학기술자협회에서 매년 작성해 보내 오고

있는 「최신 일본 첨단기술현황」과 같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고서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한 정보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74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82년부터 3년 단위 종합학술대회로 규모를 확대 시행하여 오다가 90년부터는 세계한민족종합학술대회로 폭을 넓혀 국제 규모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통산 3회째가 되는 것이다. 회의 마지막날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는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제공과 연구 협력 및 첨단기술 자문, 고급 과학기술 두뇌 확보에 헌신적으로 참여,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동참할 것 등 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과학기술 관련 행사로는 규모가 가장 큰 행사이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의 최신 동향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전파시키는 소중한 기회인 동시에 지구촌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의 큰 잔치 마당이었다. ㉧



▲ 「과학기술의 세계화 전략포럼」에서는 핵심기술개발의 범국가적 협력과 연구 생산성에 역점을 두는 연구개발활동의 전개 등을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